

[종합·해설]

버지니아공대 총기 참사

美 NBC, 조씨 우편물 공개

사회 향한 무차별 적개심…사전계획 치밀

동영상 통해 부유층 향한 증오심 표출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조승희(23)씨가 사건 당일 미 NBC 방송에 서부영화 총잡이를 연상케 하는 끔찍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비디오, 기록 등의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 또 한번 충격을 낳고 있다.

미 NBC 방송은 18일 오후(현지시간)부터 'NBC 나이틀리 뉴스'(Nightly News)를 통해 조씨가 보낸 동영상과 사진 등을 전격 공개했다.

NBC 방송의 스티브 캐퍼스 회장은 조씨로부터 두통한 우편물을 받아 즉각 FBI에 신고했으며, 그가 보낸 사진과 비디오, 우편물 등은 기숙사에서 1차 범행을 강행한 뒤 공학관에서 2차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29장의 사진과 비디오 테이프를 보냈고, 2장의 사진은 밝게 웃고 있는 평범한 청년의 모습을 담고 있으나 나머지 11장의 사진은 서부영화 총잡이처럼 권총 두정을 양손에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등 강한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다.

또 나머지는 조씨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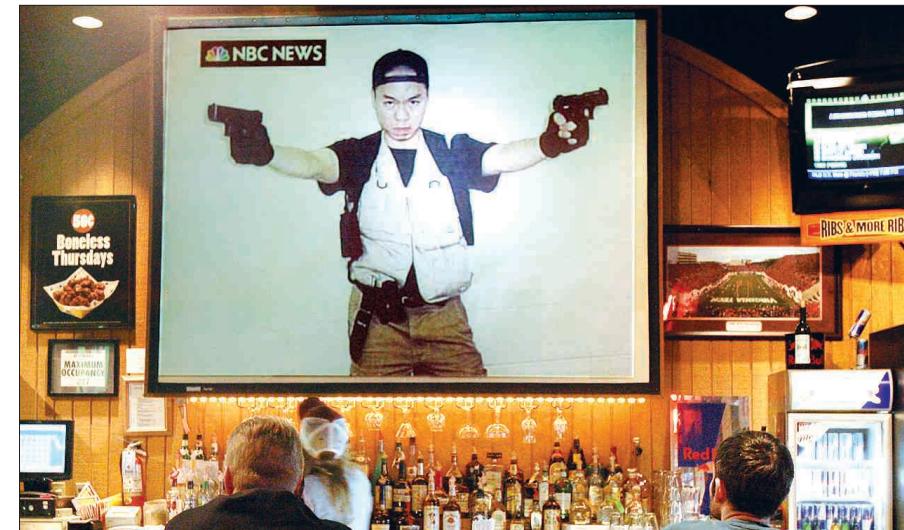
책상위에 총을 올려놓고 전장하는 사진 등도 포함돼 있으며 직접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비디오도 방송국에 보냈다.

NBC는 조씨가 '원한'과 '파괴' 등 1천 800 개의 단어를 이용한 성명서(manifesto)를 통해 분노를 표현하면서 특히 부유층에 대해 증오감을 드러냈다면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우편물에서 "얼굴에 짐 뱉으면 어떤 기분인지, 살아 있는 상태에 불로 지지면 어떤 기분인지, 목에 쓰레기 들어 있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닌가"고 마치 사회 전체를 향해 저주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내가 이 일을 저지른 건 나네 덕분이다. 예수처럼 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악자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이 일을 저질렀다"면서 "너는 오늘은 괴할 수 있는 수천억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내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이 결점은 네가 한 것이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네 손에 묻은 피는 결코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내 가슴과 영혼을 찢었단다"면서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버지니아 블랙스버그의 한 음식점 손님들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범 조승희씨가 NBC 방송국에 보낸 사진 한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 내가 아닌 내 아이들과 형제 자매 등을 위해 이 일을 한다"고 횡설수설했다.

우편물 발송을 통한 이런 수법은 지난 1970년~1990년대 이른바 '유나보머'(Unabomber)라고 불린 연쇄 편지폭탄 테러범 시어더 카진스키가 '유나보머 선언문'이라고 명명된 '산업 사회와 미래'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현대 기술문명의 위험성 경고를 자신

의 범행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 경찰청장인 스티브 프레하티는 "이것은 새롭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우편물의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해, 단순한 치정 사건보다는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문광장관 김종민 해수장관 강무현

법제처장 남기명, 보훈처장 김정복 차장 승진 기용

4개 부처 개각

예산처 차관 반장식



김종민 문광장관 강무현 해수장관 남기명 법제처장 김정복 보훈처장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문화관광부 장관에 김종민 한국관광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 강무현 전 해수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밝혔다. 장관급인 법제처장과 보훈처장에는 남기명 법제처 차장과 김정복 보훈처 차장이 승진 기용됐다.

또 기획예산처 차관에는 반장식 기획예산처 재정용실장이, 행자부 2 차관에는 한범덕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각각 발탁됐다.

김종민 문광부 장관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 행시 11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 의정국장, 청와대 행정, 민정비서관 등을 거쳐 지난 1996년 옛 문화체육부 차관을 지냈다.

강무현 해수부장관 내정자는 원주 대성고,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행시 22회 출신으로 해수부 기획예산 담당관, 공보관, 수산정책국장, 해운 물류국장 등 해수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남기명 법제처장 내정자는 대전고, 충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시 제 18 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출곧 법제처에서 근무해온 '법제통'이다.

김정복 보훈처장 내정자는 부산고, 부산대 상학과를 졸업한 후 7급 국세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총무과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을 거친 정통 국세 관료로 2005년부터 보훈처 차장으로 근무해왔다. 그의 부친이 3·1 운동 유공자인 고 김영규 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朴 '무안 조우' 20분차 불발

<명박> <근혜>

보선 지지 유세…합동유세 무산 책임 공방

한나라당 양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무안 조우'는 결국 무위로 끝났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면서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정권교체를 위한 지역갈등 해소와 단합'을 강조했으나 정작 자신들은 같은 유세 연단에 조차 올라서지 않았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는 19일 오전 차례로 전남 무안 5일장을 찾아 오는 4·25 제·보궐 선거에서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출마한 강성만 후보와 함께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 20분의 시차를 두고 유세장을 찾아 '극적인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먼저 등장한 것은 전날부터 호남에 진을 치고 있던 이 전 시장. 도착하자마자 시장을 돌아다니며 표물이에나

을 드러냈다.

박 전 대표는 호남출신의 한 영 죄고위원을 비롯해 김무성, 한선교, 이계진, 이인기 의원들을 대동하고 세를 과시했고, 이 전 시장측에서도 차명진, 이성권 의원이 당초 이날 오전 상경하려던 계획을 연기하면서까지 맞불을 놨다. 이날 합동 유세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양 진영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공방을 벌였다.

이어 박 전 대표가 대중적 인기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수십명의 지지자들을 몰고 유세장에 나타났다. 그도 역시 "이번 제보궐 선거는 정권교체나 아니나를 판가름짓는 마지막 판문"이라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검증 논란, 경선 룰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신경전을 펼쳐온 두 사람의 기싸움은 이날 유세장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났다. 마치 '만나지 말자'는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전 시장이 연설을 마친 뒤 자리를 뜨자 박 전 대표는 이 전 시장이 사라진 반대방향에서 모습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공약대로 가장 시원한 가격으로 가져가세요~

귀뚜라미 홈시스 만족백배 축제!

※ 행사기간 : 2007. 4. 1 ~ 4. 28

① 에어컨! 가격부담은 내리고, 사은품은 올리고!!

- 벽걸이에어컨 구매시 16" 선풍기와 문라이트 도자기 SET증정
- 패키지에어컨 구매시 공기청정기(KHA-520) 증정

② 다양한 무이자혜택 및 Slim할부 혜택

- 국민카드, LG카드 : 3~6개월 무이자
- BC카드 2,3개월 무이자
- LG카드 Slim할부(8개월, 12개월, 16개월, 18개월)로 선이자만 부담 (행사 참여점에 한함)

③ 新 금융 굿세이브리스 런칭기념 사은혜택

- 거꾸로 냉동방기 구매시 5평형에어컨(PS-050C)
- 또는 공기청정기(KHA-1860) 증정(행사 참여점에 한함)
- (단 HCR-IN100R, HSM-IN210R, 헌전원격제어에어컨 제품 제외)

④ 황사 잡는 공기 청정기 출시기념!!

필터 무료증정

- 공기청정기 구매시 최장 2년분의 필터를 무상으로 드립니다.

Homys



귀뚜라미 홈시스
1588-9000, 1600-2000, 1566-0033

1~2차 범행 사이 '2시간 미스터리' 풀려

우편물에 이름 대신 쓴 '이스마엘' 의미는?

■ 풀린 의문과 남은 의문들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의 범인인 조승희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전달한 우편물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일부 해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또 오히려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들도 있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구멍은 미궁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 풀린 의문들 = 이번 우편물 공개로 일단 왜 조씨가 32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무참하게 죽였는가 어느 정도의 문이 풀렸다. 조씨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한 분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 문이다.

그동안 치정문제로 규결돼 가던 범행 동기도 이번에 더 큰 분노가 자리잡고 있음을 입증됐다. 물론 조씨가 내세운 범행동기가 자신이 행동을 영웅시하고 학리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지만 특정인에 대한 반감 이상의 범행이유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1차 범행 이후 2차 범행 사이 1시간 30분~2시간동안 묘연했던 조씨의 행방 의문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 여전히 남은 의문들 = 조씨가 방송사에 보낸 우편물 내용만을 놓고 보면 조씨

가 다른 기숙사를 방문, 2명을 사살한 1차 범행이 왜 일어났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씨가 부자들에게 대한 반감, 쾌락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 것이라면 소수가 생활하는 기숙사를 골라 1차 범행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

더욱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에서 다른 기숙사 1개 동을 지나서 위치해 있는 앤들리 존슨호 기숙사에서 1차 범행을 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씨가 앤들리 제인 힐셔 양의 기숙사방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해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앤들리는 지난 2005년 조씨가 스토킹했던 대상도 아니었다.

또 조씨가 1차 범행을 저지른 뒤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이용해 학교밖에 위치한 우체국까지 왔다갔다 활보한 뒤 2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접수시킨 뒤 다시 노리스홀로 와서 범행을 저지른 점도 현재로선 설명이 안된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

조씨가 우편물을 배달할 때 자신의 이름 대신에 '이스마엘'이라고 적어넣었고, 조씨 시신의 팔뚝에서도 '이스마엘의 도끼'라는 말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스마엘'의 의미가 뭔지 역시 궁금증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